

2021년 6월 2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5편 20~2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25편 20~21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25장(통2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7장 15~28절(구약p.1246)

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
17.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18.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놋이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 말씀선포 / 성도의 고난과 승리

다니엘서의 본론은 7장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입어 환상을 보게 된 다니엘 또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보여 주신 환상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본 환상의 뜻을 알 수 없음에 근심하며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메트케리야트”로 원형은 “카라”로서 “고통을 당하다, 슬퍼하다, 비탄에 잠기다.”란 뜻이고, 근심한다는 것은 “예바할룬나니”로서 원형은 “베할”인데 이 뜻은 “겁이나다.”란 뜻입니다. 그럼으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그 환상을 통하여 슬퍼하며, 고통 속에 비탄에 잠겨 있을 뿐 아니라 알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았기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냥 슬픔과 고통 속에 겁을 먹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라 했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경건한 자이기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다니엘은 천사에게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천사는 환상에 내포된 의미들을 다니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줍니다. 과연 그 환상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환상은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통치자들로 인해 경건한 성도들이 받게 될 박해와 고난,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최종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천사는 알려줍니다. 그럼으로 성도는 이 환상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어느 시대나

1.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을 깨달지 못해 큰 번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 그 곁에 있던 천사 중 하나에게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본문 16~17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환상의 의미를 묻는 다니엘에게 천사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들이 역사상에 나타날 네 명의 왕임을 설명해 줍니다. 이 네 명의 왕들은 이 세상을 포악하게 통치하고 위세를 떨칠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천사는 넷째 짐승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넷째 짐승의 열한 개의 뿔은 넷째 왕국의 지속적 지배와 통치자의 오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오만한 왕의 통치 아래서 성도들이 받아야 할 박해와 환난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납고 잔인한 뿔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성도들은 종말이 임박한 고난의 시기를 지낼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시대에 이 환상에서 네 짐승은 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은 이 시대가 이미 지나갔으니 현재 있는 나라에 적용하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네 짐승이 오늘날 어떤 나라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게 성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환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정하신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과 거룩을 비웃고 박해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더욱 인내와 믿음으로 이 짧은 기간을 견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나무처럼, 믿음의 주여 오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는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인내로 모든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는

2.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오늘 본문의 예언에 따르면, 넷째 나라의 열한 번째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본문 20~21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또 23~25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22절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고 했고, 26~27절에서도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모든 흑독한 박해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던 통치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온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등극하셔서 이 세상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이며,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덧입는 사람이고, 자기 내면의 고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쉽게 분노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습관들을 죽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인격으로 빚어 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시면 기뻐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격의 연단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 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 기다림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옛 성품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덧입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매사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새롭게 빚어짐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585장(통384)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폐 회 / 주기도문